

북한의 의학 서적

박형우* · 여인석** · 노재훈***

1. 서 론

최근 남·북한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학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않은 듯하다. 특히 북한의 의료 제도에 관해서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소개되었으나, 의학 교육과 관련된 서적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남한에서는 주로 외국의 의학 서적을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한글판 서적이 활발히 발행되고 있다. 북한은 사회 체제 등 여러 면에서 우리와 다르기에 의학 교육에 어떤 서적들을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의학 서적이 그 사회의 의학 수준을 나타내거나 어떤 지표로 사용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북한 의학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한 의학 서적에 관한 정보는 북한 의학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들은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간된 서적들 중 서지학적 자료가 정확한 575종의 서적을 대상으로, 출판사, 연도 및 전문 분야 등으로 나누어 출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 북한 의학 서적 정리 원칙

북한의 의학 서적을 정리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서적은 미국 워싱턴대학 동아시아도서관, 국회도서관,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 및 하바드대학 하바드엔칭도서관 등에 소장된 것과 1963년 평양 출판인쇄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목록'에 수록된 것이다. 그밖에 위의 서적 및 잡지 등에서 참고문헌으로 사용한 것들을 참고하였다. 여러 서적의 실물을 직접 확인한 것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의학 전문 서적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 서적, 기타 관공서에서 나온 것들도 일부 포함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서적의 분야별 분류는 가능한 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의학 서적을 발행한 주요 출판사

대부분의 출판물은 평양에서, 그리고 일부가 지방에서 발간되었다. 가장 많은 서적을 출판한 곳은 '과학, 백과사전출판사'로 173권을 주로 80년대 이후에 출판하였으며 '고등교육도서출판사'는 138권을 50년대말-70년대에 출판하였다. 그리고 '의학서적출판사'는 103권을 50년대말-60년대에 출판하였으며 '국립출판사'는 37권을 50년대초에 출판하였다. 교육성과 보건성은 49권을 40년대에 활발히 출판하였다. '조선의학'이란 잡지를 발간하던 '조선의학사'는 23권을 출판하였다. 그밖에 필요에 따라 조선여성사, 아육도서출판사, 군중문화사, 조쏘문화협회,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노동기술도서출판사, 국민출판사, 과학원, 국립인민출판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생선전부, 보건성 위생방역국 위생선전부, 조선금성사, 외국문도서출판사, 평남도 인민위원회 예방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및 의사학자료실

** 국립환경연구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과, 중앙방역위원회, 사회과학출판사, 적십자출판사, 평양의학대학출판부, 조선노동당출판사 등에서도 의학 서적을 출판하였다.

4. 연대별 출판 서적의 수 및 특징

출판 서적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그 수 및 주요 특징을 살펴 보았다. 1945-1949년에는 28권이 출판되었으며, 주로 사회주의 의학을 소개하거나 소련 의학서적을 번역한 것이었다. 1950년대에는 202권의 서적이 출판되었으며, 책의 내용은 40년대와 유사해 주로 번역한 것이었으나 일부는 북한 의학자의 저술로 발행되었다. 1960년대에는 99권이 출판되었으며, 번역물이 급격히 감소하고 저서가 많아졌다. 1970년대에는 54권이 출판되었으며, 보다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이 출판되었다. 1980년대에는 174권이 출판되었으며, 주요 임상분야를 다룬 전서(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방역전서)의 출간이 활발해졌다. 일부 주요 과는 10권 이상의 책이 각 권당 400페이지 정도로 출판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18권이 출판되었는데 전서의 출간이 거의 마무리되고 세분된 전문 분야의 서적이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위의 자료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50년대에 특히 출판이 활발한 것인데, 이것은 이 시기의 자료가 1963년 발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목록'에 거의 완전히 수록되어 있는 반면, 저자들이 수집

한 60년대 이후의 자료는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5. 분야별 출판 서적의 수

기초의학 분야에서 해부학은 40권, 생화학은 10권, 생리학은 19권, 미생물학은 21권, 병리학은 13권, 법의학은 7권, 기생충학은 11권, 약리학은 37권(약학 포함), 의학사는 2권, 의용공학은 1권, 물리학(의전용)은 1권, 예방의학은 84권이었으며, 북한 의학이 사회주의 의학으로서 예방의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때 예방의학 관련 서적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임상의학 분야에서 내과학은 115권, 신경과학은 7권, 일반외과학은 38권, 정형외과학은 10권, 재활의학과학은 1권, 신경외과학은 1권, 심장외과학은 2권, 성형외과학은 1권, 소아과학은 38권, 산부인과학은 19권, 이비인후과학은 13권, 안과학은 7권, 비뇨기과학은 4권, 피부과학은 10권, 정신과학은 2권, 방사선과학은 13권, 핵의학은 2권, 마취과학은 3권, 임상병리학은 23권이었다. 그리고 치과학은 4권, 간호학은 11권, 의학사전은 4권이었다. 임상 분야 서적은 주요 과목(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을 위주로 출판된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색인어 : 의학서적 · 북한

= ABSTRACT =

Medical Books Published in North Korea

Park, Hyung-woo, MD, PhD*, Yeo, In-sok, MD** and Rho, Jae-hun, MD, PhD***

In those days, commercial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ecome more active than before. But in medicine, there has been no activities of exchange and we don't know much about medicine in North Korea. We have some information on medical systems in the North, but we know little about how the medical activities are, what achievements they have made and what kind of medical books have been published.

The authors classified 575 books according to their specialties and publishing years and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and tendencies of medical books publishing in North Korea.

KEY WORDS : Medical Book, North Korea

*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Anatomy, Archives of Medical History

**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